

南
漢
江

남한강

유역의

민속문화

3. 남한강의 수운과 나루



3. 남한강의 수운과 나루

조선시대에는 한양지역의 한강을 ‘경강(京江)’이라고 불렀다.

당시 경강상인의 근거지인 5강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업도시적 모습을 갖추며 발전해가던 용산, 마포, 서강, 양화진, 한강진 등으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한강 변에는 노량진, 동작진, 서빙고, 두모포, 뚝섬, 송파진, 삼전도 등지의 포구도 자리를 잡으며 유통기지로써 주목되어 가고 있었다.

경강상인은 원래 나룻배 주인으로서 출발하여 주막을 경영하면서 점차 장사에 손을 댔다. 나루터 주변에는 뱃사공과 뗏꾼들, 장사꾼들로 항상 북새통을 이루었고 이들을 상대하는 술청거리가 형성되고 있었다. 나루터에 각지의 물산이 집결되면서 나룻배 주인은 그 물화(物貨)를 처분함에서 거간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물화의 일부를 구입하여 이익을 붙여 다시 처분하는 등 소상인(小商人)으로 활약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부자가 된 선인(船人)들 중에는 커다란 선박을 여러 척 소유하게 된 경우도 나타났다.

경강상인이 자본을 축적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정부의 세곡이나 재경지주(在京地主)의 소작료를 서울까지 운반해 주고받는 대가를 통해서이며, 둘째는 전국의 포구 및 내륙 강변을 연결하면서 전개한 선상(船商)활동으로 얻는 이윤을 통해서이다.

선박을 이용하여 상품의 생산지로 다니면서 물회를 구입한 경강상인들은 그 물회를 다른 곳에서 처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용산, 마포, 서강 등 한강 연변에서 처분하였다. 원래 한강 연변에는 조선 전기부터 미전(米廩), 염전(鹽廩), 어물전(魚物廩), 시목전(柴木廩) 등이 생겨나고 있었는데, 그들은 독자적인 경우도 있었고 성내의 시전과 깊은 관련을 가진 분전(分廩)과 같은 경우도 있었다.

경강상인들의 상품은 미곡, 소금, 생선, 건어물, 목재, 시탄, 직물 등 다양하였다. 이들의 상업 활동은 지역적으로 다소 전문화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용산과 서강은 세곡의 집산지였으므로 미곡의 거래가 활발하였다 한다. 그런데 용산은 미곡뿐 아니라 조선초기부터 목재의 집산지였고, 시목전(柴木廩)이 유독 용산에만 있었음을 볼 때 목재와 시탄의 거래도 성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마포의 경우에는 새우젓장사의 후예라는 별명을 요즘도 들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젓갈, 소금, 생선, 건어물 등 해산물의 집산지로 유명했다.

경강상인은 미곡뿐만 아니라 시탄과 목재 및 제빙업(製氷業)에 있어서도 비교적 대규모의 도고활동(都庫活動)을 펴고 있었다. 서울 시내에서 소비되는 가정용 시탄과 건축용 목재는 모두 강원도 산악 지방에서 벌채되어 선박 혹은 뗏목으로 독섬, 용산 등 한강에까지 운반, 판매되었는데 이 역시 경강상인들이 매점하여 이익을 취하였다. 특히 시탄은 도시 사람들이 자급할 수 없는 생활 필수품이었다. 시탄은 용산과 독섬에서 주로 거래되었다. 용산은 조선초기부터 목재의 집산지였고 유일한 시목전(柴木廩)이 있던 곳이며, 독섬의 신탄도고(薪炭都賈)는 예부터 유명하여 당시 강원도 삼림 지대에서 배로 운반되어 온 신탄(薪炭), 즉 숯이 여기에서 대부분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원래 동빙고가 있던 오늘의 성동구 옥수동 강가의 두모포 역시 경강상인의 터전이었다. 그곳은 한강 상류 지방에서 오는 각종 물자, 특히 고추, 마늘, 감자, 고구마 등과 목재·시탄의 집산지였다. 이곳에 근거지를 둔 경강상인들은 시탄과 목재를 매점하여, 정조 15년(1791)에는 서울 시내의 시목(柴木)이 3일 간이나 품절된 때도 있었다.

남한강 수운을 이용한 교역의 으뜸 생활 품목은 단연 소금이었다. 대개 서울의 마포, 용산, 서강을 비롯한 남한강 하류 지역인 광주, 여주, 이천 지역에서는 서해안 소금이 유통되었지만, 남한강 중상류 지역인 원주, 영월, 정선, 평창, 목계 등지에서는 동해안 소금이 유통되었다.

《택리지》에 수록된 충청도조와 강원도조의 기록을 살펴 보기로 한다.

원주는 영동과 경기 사이에 끼어서 동해의 어염·인삼, 관곽(棺槨), 궁전의 재목을 운수하여

도내의 도회(都會)가 되었다.²⁵⁾

탄금대(彈琴臺)의 서쪽에 목계가 있는데, 이곳은 강을 내려오는 어염선이 정박하여 세를 내는 곳이다. 그리고 동해의 생선 및 산간의 화물이 대개 이곳에 모이며 주민들은 모두 장사를 하여 부자가 된다.²⁶⁾

전 세계적으로 소금은 화폐의 대용품으로 이용되었거니와 《중종실록》에도 “만약 소금만 있다면, 비록 곡식이 없어도 채소와 더불어 함께 먹으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죽음에 다다르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기아를 극복하는 방법을 말함이다.

이익은 생활 속에서 “반드시 유통되어야 하는 것은 오직 소금과 철이다.”라고 하여 소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조선사회에서는 양반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명태를 포로 만들어 조상께 올렸기 때문에 소금의 수요가 급증하였던 것이다.

《도담행정기》(1823년 4월 14일)를 예화로 들어 당시 사정을 살펴 보기로 하자.

강가에서 아이가 생선 4마리를 파는데, 값이 12전(錢)이라 하므로, 사서 아침을 먹고, 뱃사공이 일이 있어서 해가 한낮이 되어서야 비로소 10리를 가서 월계천(越界遷)에 이르렀는데, 두 강가 기슭의 돌길이 험하고 험하고 어려워서 두미천과 서로 비슷하다.

얼마 가지 않아 대탄(大灘)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는데 이곳이 곧 상류의 가장 험한 여울인데 이제 순풍을 얻어 돛을 달고 바로 올라가니 바람과 물이 서로 부딪쳐 물결이 드세다.

여울 가운데에 큰 돌이 가로 막고 있는데 이것을 세속(世俗)에서 차일암(遮日巖)이라고 하여 물이 넘치면 보이지 않고 물이 얇으면 물결이 부딪쳐서 그 아래로 지나는 조선(漕船)들이 가끔 뒤집히기도 했다.

오후에 상삼리에 도착했는데 우리들이 탔던 배는 여기서 그쳤다. 선주를 물었더니 서진사(徐進士)라고 한다. 그는 이미 진사에 올랐으니 분명 이는 사족(仕族)이요, 성이 서씨라고 하면 대개 현달(顯達)한 문벌인데 시례(時禮)에 종사하지 않고 오직 이익을 좇아 배를 사서 강에 띄워 나무와 숲을 실어 사 가지고 갔다가 팔고 오니 죽히 탄식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를 버리고 여러 시간 머물다가 다시 탄 배를 끌어다가 탔다. 그 배는 충청도 청풍군(淸風郡)의 배였다.

동쪽 산골에는 소금이 귀하기 때문에 그 배가 올 때에는 나무와 숲·콩과 담배 따위를 싣고 경강(京江)에 도착하여 팔고, 돌아갈 때에는 소금과 젓갈을 많이 싣고 가는 것이 통례이다.

저녁 무렵에 제탄을 지나 저물게 물말독촌에 배를 대고 배에서 내려 원씨성(元氏姓)의 사람의

25) 李重煥·朴齊家, 盧道陽·李錫浩 譯, 《擇里志·北學議》, 대양서적, 1972, p. 113

26) 李重煥·朴齊家, 盧道陽·李錫浩 譯, 《擇里志·北學議》, 대양서적, 1972, p. 152

주점에 묵었다. 이날은 20리를 갔다.

그러면 여주군 지역의 나루에서 서울로 들어온 생활 교역품은 대강 어떤 것들이었는지 살펴 보기로 한다.

여주 평야에서 나오는 쌀, 콩, 고구마 등의 품질 좋은 농산물이 남한강 물길을 타고 서울의 각처로 운반되고, 인천에서 생산된 소금과 마포의 새우젓과 기타 생활필수품들이 여주를 거쳐 경기도, 강원도 각처로 운반되었다.

여강의 동북지역은 산지가 많지만, 남쪽 지역은 전형적인 여주평야가 펼쳐져 있고 넓은 들과 야산이 잘 발달되어 있다. 이 지역에는 해방 이후에 실시된 토지 개혁 이전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대지주들의 땅이 많아서 지주의 권한을 위임받은 마름을 두고 소작농과 도지를 관리하였다. 그래서 수확기가 되면 곡식의 수량을 파악한 후 배를 사용하여 곡식을 수송하곤 하였다.

수운(水運)뿐만 아니라 남한강은 풍요로운 수산 자원으로 여주 군민들의 경제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기반이 되기도 하였다. 강마을 주민의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농사일이 끝나면 배를 타고 강으로 나가 주낙과 그물로 쏘가리, 납자루, 빠가사리, 잉어 등을 잡아 만만치 않은 부수입을 올리기도 하였다.

다음은 남한강 유역의 나루 중 경기도권에 있는 몇 개의 나루를 사례로 그 교역 물품을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창남나루는 여주군 점동면 삼합리 대오마을과 창남마을에 있는 나루로, 건너편은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창말로 흥원창이 있던 지역이다. 조선조까지 이 흥원창에 집결된 강원도의 세곡은 남한강 물길을 타고 서울로 수송되었다.

대오마을과 창남마을은 섬강과 남한강이 합수하는 지역에 위치하는 마을로 해방을 전후한 시기까지 강원도의 물산과 경기도의 물산이 교역되던 중심지였다. 한때는 원주에서 장호원으로 이동하는 소가 하루에 30여 마리 이상씩 묶어갈 정도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곳이었다고 한다.

브라우나루는 수심이 깊고 흐름이 완만하여 소금배가 정박하고 장호원의 물자가 집산하였다 하나, 마을에서 부리는 짐배는 없었고, 뗏목이 묶어 가지도 없었다고 하지만, 영월, 정선 쪽의 뗏군들의 제보에 따르면 브라우나루는 때가 쉬어가는 꽤 큰 나루였는데, 뗏군들이 뗏바닥에 몰래 숨겨온 개줄가리(땀감으로 쓰는 작은 원목)들을 사려는 사람들이 수원 등지로부터 와 있어 이곳에서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곤 하였다고 한다.

우만이나루는 여주군 여주읍 우만리에 있는 나루이고 건너편은 강천면의 적금리이다. 우만이나루는 우만리와 떡곡리 사람들이 강천면으로 땀나무를 하러 갈 때 주로 이

용하였고 건너편에서는 적금리, 굴암리, 가야리 사람들이 여주장을 가거나 학생들이 여주읍에 있는 학교로 통학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했다. 원주장에서 소를 사서 여주장과 장호원장까지 이동하는 소장수들이 이 우만이나루를 경유하기도 하였다.

조포나루는 북내면 천송리에 위치한 나루인데, 조선조 기록에 호포진 혹은 조포진이란 기록이 보여 유래가 오래된 나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을에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주라 했는데, 뱃사람을 몇 명 부리며 여주의 양곡을 싣고 서울로 가서 소금과 새우젓 등 젓갈류와 교환해서 가지고 오곤 하였다.

영월 등지에서 내려오는 뗏목도 자주 지나다녔는데, 여주 대교 근처의 마암대와 영월루 근처에는 탄섬여울 등 물살이 빠른 곳이 있어 밤에는 위험하여 내려가지 못하고 쉬어 갔다.

그래서 주막도 번성하였는데, 색시는 없었고 숙식만 제공했다. 신록사와 텃골 사이에 생골이라고 있었는데 저기가 예전의 주막자리이다. 충주댐이 생긴 후 영월에서 오는 뗏목은 없었지만 충주에서 내려오는 미루나무 뗏목은 있었는데, 용도는 나무젓가락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호나루는 여주군 강천면 이호리(배미리, 배암리)에 있는 나루이다. 조선시대의 기록에 이호진이라는 이름이 보이므로 유래가 오래 된 나루임을 알 수 있다.

이호나루는 영월에서 내려오는 뗏목도 많이 쉬어 가고, 서울서 올라 오는 뚝배도 자주 왕래했다. 이호 나루는 인천과 강릉을 연결해 주는 주요 교통의 요지였고, 서울에 거주하는 지주들도 이곳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 인천, 서울 등지에서는 소금과 새우젓 등을 싣고 올라오고, 물물교환이나 도지로 받은 곡식들을 싣고 내려갔는데, 운용되는 뚝배도 200가마를 실을 정도의 큰 배들이었다.

대신면 천남리에 있는 천남나루에는 주막집도 하나가 있는데, 간혹 뗏목과 소금을 실은 뚝배가 쉬어 가던 곳이었기 때문이라 한다. 뗏목이 내려올 때는 뗏꾼들이 미리 연락을 취하는데, 그러면 주막에서는 돼지도 잡고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대기하곤 했다. 천남나루와 여주나루 사이에는 '제비여울'이라는 물살이 빠른 곳이 있어 뗏목이 파선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양화나루는 여주군 능서면 내양리 양화동과 대신면 초현리와 당산리 사이를 건너는 나루이다.

양화동에는 땀감을 벨 수 있는 적산 임야가 106정보가 있었다. 이 산판에서 베어진 나무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강배들이 많이 드나들기도 했는데, 이 배들은 모두 타지에서 나무를 싣기 위해서 들어오는 배들이며, 산판은 목상이 관리했다.

또한 마포에서 소금, 새우젓배가 매일 들어오다시피 하였으며 마을에서 부리는 짐배

도 곡식을 싣고 내려 가서 소금, 새우젓을 사오기도 하였다.

이포나루는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에 있는 나루로 천양 혹은 천령나루, 배 나루, 배개 나루라고도 한다.

이포나루는 예전부터 남한강의 4대 나루에 속하는 커다란 나루이며 항구였다. 그래서 소금배와 짐배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고, 뗏목들의 왕래도 빈번했다. 특히 이포의 경우는 전문적으로 배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다. 이중환의 《택리지》에는 “(이포의) 백애촌은 주민이 오로지 배로 장사하는데 힘을 써서 농사에 대신하는 바, 그 이익이 농사하는 집보다 낫다.”고 하였다.

이포에는 일제 때 인근 지역에 금광이 두 군데나 있었는데, 아랫범실과 상호리 사이에 있는 광산에는 지금도 굴이 남아 있다고 한다. 당시 외지에서 ‘금쟁이’ 들이 많이 모여 들기도 했고 한때는 200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그래서 예전 이포에는 뱃사람, 뗏꾼, 금쟁이, 장돌이 등이 끊임없이 출입하였기 때문에 시장터에 주막과 술집이 즐비하였다.

이포에는 통나무로 만든 뗏목이 주로 영월에서 내려 왔다. 정선에서 묶은 뗏목은 장마 때에나 내려왔다. 뗏목이 내려갈 때는 사람들이 “조밥 먹고 돼지우리나 지어라.”라고 욕하며 놀려대곤 했다. 떼가 여울에서 돌면 둥글게 말렸다가 결국은 끊어지고 산산 조각이 나게 된다. 뗏꾼들은 주막에서 15전에 잠을 자고 떼를 고쳐 매고 간다. 술거루도 있었는데, 주모가 배를 가지고 가서 고기와 술을 뱃사공과 뗏꾼들에게 파는 것이다. 가끔 뗏꾼들이 밥을 먹다 돈이 없으면 떼에 싣고 가던 나무 한 토막을 풀어서 주기도 했다.

이포나루의 여울 지역에 물이 줄면 주민들이 가래로 물 밑의 흙을 파서 배나 떼가 지나가게 골을 판 다음 통행세를 받는데 이를 ‘여울세’, ‘뱃세’라고 한다.²⁷⁾

필자가 조사한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있는 두물머리나루와 광주시 남종면 수청리에 있는 청탄나루의 교역 물목과 운송과정을 사례로 들면 다음과 같다.

청탄나루의 경우, 마포에서는 소금을 싣고 영월로 가서 팔을 교환하였는데, 장마가 저서 물이 풍부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팔을 가지고 마포로 내려가 되팔았다. 이를 ‘바꾸미’라고 하는데 여기서 당시 뱃사람들의 끈질긴 삶의 역정을 읽을 수 있다.

두물머리나루에서는, 뗏목으로 운송했던 화목(火木)은 겨울철에 해놓는데 겨울이라 강물이 적어 배가 내려오기 힘들므로 조금씩 내려오다가 목계나 그 밑에 와서 대놓는다. 강원도 영월과 춘천 쪽에서 내려오는 배들은 능내 두명소 쪽에 정박하였고, 남한강 쪽은 두물머리나루터에 정박하였다. 해가 지면 불법으로 화목을 싣고 가는 배는 늦은 밤에 떠나지만, 허가받은 배는 인두로 화목에 도장을 찍는데, 이 배는 낮에 일찍 뚝

27) 이정재, 《남한강 수운의 전통과 민속》, 남한강담사보고서, 2002, pp. 32~45

섬이나 마포로 내려가 목상들에게 나무를 팔았다.

남한강의 나루는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조사 정리된 바가 없으므로 그 수를 명확하게 헤아리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손낙기가 조사 정리한 남한강의 나루는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는 바, 대략 90여 개에 달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포, 용산삼계, 가칠목, 검은돌, 서빙고, 보광리, 한강, 무수막(무쇠마) 압구정, 뚝섬, 숯골(청담동) 백구지, 새내(신천동) 송파, 광나루, 우미내, 바우절리, 토막나들이, 가래울, 미음, 둔치, 청구, 덕소, 동막골, 당쟁이, 바댕이, 창모루, 뺨미, 봉암, 숯막구미, 마재, 정자구미, 소내, 고랭이, 두머리(두물머리), 돌더미, 쟁이울, 검단내, 청탄, 구름개, 한여울, 상심리, 옥천, 양근, 서라우, 양덕, 개군, 이포, 여주, 우만, 혼암, 삼합리, 목계, 가금, 탄금대, 목행리, 동양, 꽃바우, 상진, 삼봉, 단양, 영춘, 영월, 아우라지, 장열, 나진, 애산리, 진필, 세대, 노미, 귀리별, 광하, 굴하, 뒷대별, 수미, 가탄, 해미, 고재별, 수동, 접치, 갈별, 소골, 제장, 바새, 연포, 가정, 문희, 진탄, 고무, 난지, 섭새, 목골, 동굴바우, 덕포²⁸⁾

그런데 실제 물화를 운송하는 거룻배는 필요에 따라 염창, 행주까지 내왕하기도 하였다.